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8. 10:00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산업위원회 김 기 영 의원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산업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가장 핵심사항은
예산안 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촉발되었던 확진자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라는
초강수를 둘 수 밖에 없었고,

재확산의 긴장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위태로운 시기를 보내며
경제활동의 위축과 함께
민생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 집중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하여
집행부에 예산 증액동의를 요청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운용에 적극 공감하여
이례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용단을 내려주신 시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현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안 심사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우려하신 사안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도 담겨 있으며
의회의 우려와는 달리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습니다.

바로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8년 353억원, 2019년 1,478억원,
2020년 2,297억원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강릉시 재정부담을 확 줄였고,
3,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받은 공모사업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공모사업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국비는 50퍼센트정도 비율로 내려줍니다.

나머지 50퍼센트는 지방비를 부담해야하는데
도비 부담비율 얼마나 됩니까?
15퍼센트도 채 안됩니다.

2018년 353억원 중 도비 13퍼센트 부담해줘서
나머지 시비 37퍼센트 107억 부담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1,478억원 중 도비 13퍼센트,
나머지 시비 37퍼센트 512억 부담했고,
2020년도는 그래도 17퍼센트정도 뒀는데도
2,297억원 중 시비 33퍼센트로 732억을 부담했습니다.

더구나 공모사업 같은 국비매칭 사업에는
당해연도부터 시비가 대량투입 되지 않습니다.

시비 미부담액처럼
첫 해는 어느 정도 소액을 반영하지만
둘째 해 또는 세 번째 해부터
나머지 금액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가 2021년도 예산 전반에 걸쳐 드러났으며
그 영향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하수를 배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된
상수도, 하수도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거기에 농민들 내년 농사와 직접 연관된
관정개발사업, 농로정비, 농수로 개보수,
농업수리시설 등 농업분야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반면에 2021년도 예산안 공모사업 반영액을 살펴보면
21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반영된 213억원 만으로도
전 부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민생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토막이 났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동안 받아 온 공모사업으로 인해
향후 이삼년 동안 1,138억원을 더 반영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민생은 저버리실 겁니까?

이런 상황 중에도 시장님은
공모사업을 따온 공무원들만 높게 평가하고
발탁인사를 하시겠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시니

다들 앞뒤 가리지 않고
공모사업에 목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작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렵게 따낸 정부공모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1년여 기간동안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공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 확보도 되지 않은,
언제부터 유통될지도 모르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이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시장님!
공모사업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를 폄하하거나 부정하고자
발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 민생먼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공모사업은
시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의회와도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강릉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